

“뜨거웠던 목포 5·18 항쟁 현장 거닐며 배워요”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 오월길 걷기’

목포여중생 사적지 5곳 둘러봐
해설사 진지한 설명에 ‘귀 쫓긋’
안철 선생의 동아약국 등 방문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아”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뿐만이 아니라 목포에서도 항쟁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7일 전남서부보훈지청이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목포지역 학생들이 직접 5·18 현장을 탐방하며 송고한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전남서부보훈지청은 목포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의 5·18 사적지 5곳을 해설사와 함께 방문해 관련 역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인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물과 간식, 리플릿이 담긴 에코백을 메고 줄지어 먼저 찾은 곳은 목포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목포근대역사관 2관이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일제강점기 동안 양식식주식사의 목포지점으로, 해방 이후에는 목포3해역사령부 헌병대가 있던



정현태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존과장, 이돈삼·조수경 오월 안내 해설사, 목포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이 7일 목포3해역사령부 헌병대 옛터인 목포근대역사관에서 열린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목포 오월길 걷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곳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장소이기도 하다.

해설사의 진지한 설명에 쾌청한 날씨에 눌러 나온듯한 기분으로 들뜨던 학생들의 분위기는 금방 숙연해졌다. 몇몇 학생들은 나눠준 리플릿에 이름을 적으며 열심히 필기를 했다.

학생들은 이어 5·18 전후 목포 재야세력들의 집결지였던 안철 선생이 운영한 동아약국을 둘러봤다. 안철 선생은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민주운동 지도자다. 안철 선생을 비롯한 재야 및 종교계 대표 등 20여명이 동아약국에서 민주화 방안을 논의하곤 했다.

허름하고 평범해보이는 약국이 5·18 당시 민주화의 산실로 기능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종종 “우와”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열사들의 피난처이자 범시민 투쟁을 결의했던 목포 중앙교회 옛터, 시위대에 게 겁과 도시락·음료수 등을 제공했던 중앙공설시장 옛터에서도 이어지는 5

·18의 생생한 이야기에 학생들의 귀가 쫓겨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목포 5·18의 심장 부였던 목포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위, 집회 사진들을 보며 항쟁의 열기를 실감했다.

또 해설사들이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해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은 그의 이름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걷기 행사에 참여한 박지원(목포여자중 3학년)양은 “책상에 앉아서 듣는 단편적인 수업이 아니라 사적지를 직접 보면서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6월 항쟁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들도 직접 사적지를 둘러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강유(목포여자중 3학년)양 또한 “학교 근처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5·18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뿌듯하다”고 했다.

정현태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존과장은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정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번 걷기 행사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잊지말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7일 광주교육시민연대 및 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참가자 일동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수호’ 나선 광주교육단체들

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담겨
이의 없을 시 ‘시의회 수리·각하’
“자유 등 교육기본권 보장해야”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된 가운데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되면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흐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과정 참여,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는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습 성적, 장애, 용모,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따돌림 금지 등 물리·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특정 종교 과목 수강강요 금지 등 양심·종교의 자유 등

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추락의 원인을 찾던 중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됐고 광주서도 지난해 9월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해당 내용에 이성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년 내로 폐지안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이운기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6개 광역시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광주는 교권 침해가 줄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와 인천·울산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밝혔다.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교사 인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광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선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수습기자

화정아이파크 입주자들 “안전하다면 상가층 존치 가능”

상가층 철거 시 입주 1년여 지면
지난달 설명회 후 입주자 투표
‘상가층 존치’ 찬성 75.3%

붕괴 참사가 일어났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이 안전진단 후 이상이 없다면 상가층(지상 1~3층)을 존치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7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6일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후 이상이 없다면 상가층을 존치하자’는 데 투표자 668명 중 75.3%(503명)가 ‘찬성’했다. 나머지 24.7%(165명)은 ‘반대’에 투표했다.

이번 투표는 주거층과 구조가 다른 상가층까지 철거·재시공을 진행할 경우, 주

거층만 철거·재시공했을 때보다 입주 기간이 1년여정도 지연된다는 현산 측의 설명에 입주민들이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현산 측은 상가층 존치 시 안전진단 업체는 입주자 측에서 선정한 업체로 하며, 단지 외관, 커뮤니티 세대 내부, 조정 등을 특화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협의회 측은 예비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협의회는 추후 내부회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할 뒤 자문단을 구성해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엽 예비입주자 대표는 “자문단은 입주자 내 건축 관련 종사자들과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서구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산 측과 조만

간 이와 관련한 논의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 관계자는 “현재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에 한해 안전 및 해체 계획 인허가를 받은 상태다. 상가층을 해체할 경우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안전진단 후 상가층 존치가 확정되면 관련 절차는 생략된다”며 “주거층 해체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입주예비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안전진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전면철거를 약속한 뒤 해체를 앞두고 상가층 존치 방침을 밝혔다가 예비입주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지상층 전체를 철거하기로 한 바 있다.

강주비 기자

술에 취해 물에 뛰어든 20대... 해경 ‘극적 구조’

만취해 구명조끼 착용 불가 판단
해경 “음주 후 바다 입수 주의”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은 7일 오전 1시14분 여수시 종화동 낭만포차 인근 선착장에서 술에 취해 물에 뛰어든 2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받은 뒤 구조정과 대원 4명을 급파,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인들이 던져준 구명조끼를 잡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직접 입수·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 등 건강 상태는 양

호했으나, 만취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랐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할 것을 염두해 직접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가운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 스스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아 CCTV 확인·추가 진술 등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인접한 선착장에서는 바다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의했다. 정성현 기자

흥기로 어머니 협박 40대 체포

광주 한 아파트에서 흥기로 모친을 협박하던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7일 흥기로 모친을 협박한 40대 여성 A씨를 특수순속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에서 경제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 B씨를 흥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은행 대출 문제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설득하던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